효과적인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인천주안남초,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부모 교육

인천주안남초등학교(교장 김재기)는 지난 9월 20일 인천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지원으로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뜻깊은 만남의 자리가 됐다.

도서관에 모인 학부모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동숙 강사의 특강을 통해 청소년 미디어 중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및 청소년의 효과적인 스마트폰 사용습관 관리 및 지도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눈에 띄는 점은 자율적 스마트폰 사용 자녀를 기르는 '친한자' 양육 원리에 대한 소개였다. 또한,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설문 작성과 더불어 향후 위험군 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 및 지역 상담복지센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2016학년도 인천주안남초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스마트폰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외부 강사를 모시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덕택에 학교와 학부모가 모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이에 대한 올바른 예방 및 대처법을 숙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내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생활을 돌아보고,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에 노출된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향후 위험군 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 및 지역 상담복지센터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안용섭 기자 ays@

"음악 통해 우리고향 알아가요"

인천신현고, '인천의 소리를 찾아서' 수업 진행

인천신현고등학교(교장 이덕범)에서는 음악수업시간을 통해 '인천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1, 3학년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음악을 찾아서' 라는 프로젝트 수업은 그동안 인천지역의 향토민요, 대중음악 등 인천을 소재로 하는 음악을 학생들이 그룹별로 찾아보고 선정한 악곡에 담겨 있는 가사의미 분석 및 지명 등 인천의 역사를 조사한 다음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곡 부르기와 개사 한 내용으로 음악을 재창작해 보는 수업이다.

악곡 선정 시 민요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인천 지역의 향토민요를 알기도 쉽지 않고 서도 민요의 떠는 음과 콧소리를 따라 부르는 것 또한 쉽지 않기에 감상에 그치거나 직접 불러보는 것을 꺼려하거나 어려워했다.

이에 1학년을 대상으로 음악 교사가 예술강사와 함께 '강화 배치기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을 구성했고, 무형문화재 제29호 이수자를 특강 강사로 초빙해 '연평도 난봉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는 등 인프라를 활용한 수업시간을 운영해 학생들이 더욱 친숙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인천지역의 민요를 배울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형인이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서에는 수록돼있지 않은 인천 음악에 대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관심을 끌게 되고 더불어 인천의 역사에 대해 탐색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웠는데 향토민요를 전문가를 통해 배우는 시간까지 가지게 돼 인천의 음악뿐 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인천지역에 대해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게 돼 애향심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선창에 따라 부르면서 어려워하기보다 장단에 맞추어 따라 부르면서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인천지역의 음악을 알리기 위한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수업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더없이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인천신현고는 앞으로도 음악 교과 뿐만 아니라 국어, 역사 등 다른 교과와 융합수업을 통해 더욱더 지역사회연계 수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교내 전통 음악발표대회, 12월 꿈·끼 주간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안용섭 기자 ays@

GOGO! 씽씽~ 청백 콘서트

인천소래초, 학교사랑체육대회

인천소래초등학교(교장 손성대)는 9월 23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사랑 체육대회를 열었다.

"청군 백군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 친구와 웃으며 마음껏 즐기는 하루가 되자."라는 학교장의 말을 시작으로 힘찬 함성과 함께 다채로운 경기가 펼쳐졌다.

이색적으로 체육대회와 함께 교정 곳곳에서 학생들의 감성이 담긴 시화전이 열려 학생과 학부모의 눈길을 끌었다.

전교생은 개인 및 단체 경기, 단체 무용에 참여했으며, 마지막 경기인 이어달리기까지 흥미진진한 시간이 계속됐다.

특히, 각 학년에서는 꼭두각시(1학년), 썸머 댄스(2학년), 홀라후프 춤(3학년), 아름다운 강산(4학년), 바다의 왕자(5학년), 마음을 열어 힘차게! (6학년)을선보이며 협동심과 재능을 발휘했다. 무용이 끝날 때마다 포토타임이 주어져 학부모와 교사들의 플래시 세례와 박수를 받았다.

경기 중간중간 엄마 힘내세요(달리기), 월척을 낚아라(어르신 경기), 영치기 영차(줄다리기), 좀 더 빨리(이어달리기) 가 준비돼 귀여운 자녀들의 응원을 받으며 학부모 또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1학년 학부형은 "초등학생이 돼 친구들과 함께 귀여운 무용을 선보인 자녀의 모습을 보며 매우 흐뭇했다"라는 소감을 전했고, 6학년 한 학생은 "초등학교 마지막 체육대회라고 생각하니 아쉽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준비했던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학생

선인중, 학교폭력예방교육

선인중학교(교장 신갑식)는 9월 19일 오전 9시 55분부터 45분간 청운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를 초빙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학교폭력의 예방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교육 후 학생들은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타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는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1학년 윤모 학생은 "평소 나의 행동에 상처받는 친구들이 없도록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선인중학교는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선인중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신갑식 교장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용섭 기자 ays@

경기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232명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9월 23일 2016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32명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모집분야별로 최종합격자는 남부·북부 포함 ▲교육행정(일반) 186명 ▲교육행정(장애) 15명 ▲교육행정(저소득) 6명, 사서 11명, 전산 1명, 공업(일반전기) 2명, 식품위생 5명, 간호 1명, 시설(건축) 2명, 경력경쟁 시설(건축) 2명, 경력경쟁 공업(일반전기) 1명으로 총 232명이다.

이 중 여성합격자는 155명(66.8%), 남성합격자는 77(33.2%)명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당초 선발예정 인원보다 남성 12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또한, 합격자 중 연령제한 폐지로 최연장자는 교육행정(일반)에 56세이며, 최연소자는 경력경쟁 공업(일반전기) 18세이다.

최종합격자는 10월 12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신규자 실무연수를 거쳐, 신규발령을 받게 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명단 및 추후일정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학교 민주주의 문화, 교육공동체가 함께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내 초·중·고 2,292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란 자율과 자치의 학교문화 구현을 위해 단위 학교의 문화(생활양식), 구조(제도), 민주시민교육(실행)을 진단하는 도구로 작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적용했으며, 처음으로 실시한 경기도 전체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71.4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설문 조사의 목적은 교육공동체가 스스로 학교 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여 강점과 약점에 따라 공동 주인으로서 함께 책임지고 해법을 찾으며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설문 문항은 학교문화, 학교구조, 민주시민교육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고, 교직원은 30문항,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23문항씩으로 작년보다 문항 수를 대폭 축소했으며, 특히 교직원 30문항에는 학교정책과 설문과 통합하여 관행문화지수 7문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현장의 설문 부담을 줄였다.

9월 26일부터 경기도를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으로 구분하여 5주 동안 실시하며, 단위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약 45만 명을 대상으로 지수 진단 도구 온라인 시스템(http://demo.hrcglobal.com)을 새롭게 구축하여 진행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로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설문 참여가 취약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도교육청, 단위학교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안내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작년 조사 이후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을 시행했다. 작년에 비해 설문 시기도 9월로 앞당기고, 기간도 5주 동안 충분하게 보장했으며,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학교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지난 9월 초·중·고 교감선생님들과 만나 학교민주주의 지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 전문가 TF팀과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설문 문항의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지수 조사 결과는 11월 말경에 단위학교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경기도내 학교의 평균값', '조사에 응한 개별학교의 지수 값' 등을 토대로 교육공동체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학교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가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진단과 해법 찾기가 근본 목적"이라고 말했다.